

SK, 합성수지 ERP시스템 “우수”

컴퓨터월드 주관행사 우수사례 선정 ...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활용

SK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IT업계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SK는 최근 미국 워싱턴DC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컴퓨터월드 주관 <21세기 Achievement Awards>에서 자 ERP 시스템인 <eSK>가 환경·에너지·농업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다고 6월20일 밝혔다.

21세기 Achievement Awards 행사는 MS, IBM, HP 등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및 컨설팅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1989년 이후 매년 정보통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한 사례들을 수상해 왔다.

20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2002년 7월 구축된 SK의 ERP시스템은 독창성, 타 정보통신산업의 파급 효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유, 석유화학, 합성수지로 이어지는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제할 수 있어 중국의 석유국영기업 Sinopec과 Petrochem 등의 관련 인사들이 찾아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SK 박석원 상무는 “에너지 영역에 시장제도가 생긴 이후 아시아 기업이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올라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SK가 처음이며, eSK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22>